

송대 족보문화와 蘇洵의 〈蘇氏族譜〉

李紀勳*

◁ 목 차 ▷

- I. 서론
 - II. 족보의 변천과 송대 족보문화
 - 1. 송 이전 족보 변천과정
 - 2. 송대 족보의 새로운 양상
 - III. 蘇洵 〈蘇氏族譜〉의 특징과 성과
 - 1. 송대 私家족보 흥성을 개창
 - 2. 새로운 체례와 譜圖법 확립
 - 3. 曲折한 문체로 人心을 감응
 - IV. 결론
-

I. 서론

중국의 전통사회는 오랜 기간 가족을 중심으로 혈연의 원근에 따라 적자와 서자 그리고 친족과 타인을 구분하는 '종족'이라는 등급제도로 유지되었다. 종족은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친속집단으로 성인 남성이 宗子 또는 가장이 되고 부자가 계승하는 방식으로 고대 남성중심의 봉건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¹⁾ 종족 제도는 대략 周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 천자가 적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만든 大宗이란 개념이 그것이다. 대종은 동성씨족 내의 최고 家長으로 한 집안의 대통을 잇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 나라의 통치권을 잇는 존재였다.²⁾ 그리고 적

* 世明大學校 中國語學科 講師

1) 《爾雅》〈釋親〉에서 “아버지의 일가를 종족이라 한다(父之党爲宗族.)”라고 설명하고 있다.

2) 《詩經》〈大雅·板〉: “제후국들은 병풍 같은 나라의 보호자이고, 임금의 일가는 나라의

자 이외의 나머지 형제들은 각자 다른 관직과 봉읍을 분배받고 또 다른 씨족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를 小宗이라 하였다.³⁾ 이러한 종법제도는 왕족들의 통치 권력을 안정적으로 세습하는 근본이었다. 후대의 모든 조대에서 주나라의 종법제를 계승하였고 이는 중국고대 봉건사회의 위계질서이자 一家와 국가, 나아가 천하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시스템이었다.

그렇다면 중국 전통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종족은 왜 중요한가? 중국역사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형태의 종족은 그 시대의 정치체제 및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대의 봉건사회, 위진·수당시대의 귀족사회, 송대 이후의 사대부사회라고 하는 성격규정은 모두 그 시대의 종족제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송대 이후에는 서민·사대부의 종족 형성이 보편화되면서, 사회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사회생활과 그 생활공간으로서의 향촌사회의 운영에서 종족이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북송시대의 范仲淹은 자신의 토지를 기부하여 고향인 소주에 범씨 일족의 상호부조를 위한 종족 공동 재산인 義莊을 설치했고, 歐陽脩와 蘇洵은 귀족제하에서 관료임용의 기준으로 이용되었던 氏族志와 같은 관찬 족보와는 다른, 자기 종족의 공동 조상으로부터 각 개인으로 이어지는 혈연적 계통을 밝히는 새로운 성격의 족보를 편찬했다. 또한 북송시대 張載와 二程으로부터 남송시대의 朱熹에 이르는 송대 이학자들은 관직의 고하에 따른 조상제사의 범위와 형식을 둘러싼 논의를 통해서 祠堂제도와 祭祀제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⁴⁾

이렇게 송대는 중국고대사회에서 종족제도를 가장 보편화하고 공고히 한 시기로서 여러 가지 관련 이론과 제도를 구축하였는데, 그 가운데 특히 종족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인 족보가 커다란 전환점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종족제도에서

기둥이네(大邦維屏, 大宗維翰.)” 毛氏傳: “왕은 나라의 대종이다(王者天下之大宗.)” 鄭玄箋: “대종은 왕의 동성 중 적자를 말한다.(大宗, 王之同姓之嫡子也.)”

3) 《禮記》〈大傳〉: “적장자 이외의 아들인 별자가 宗祖가 되고, 그를 계승하여 종을 형성하며, 그 후사를 잇는 것이 소종이 된다.(別子爲祖, 繼別爲宗, 繼禰者爲小宗.)” 孔穎達疏: “별자는 제후의 서자를 말한다. …… 후사를 잇는 것을 소종이 되는데, 아버지의 적자가 후사를 잇는 것을 말하며, 여러 형제가 그를 따르는 것을 소종이라 부른다.(別子謂諸侯之庶子也 …… 繼禰者爲小宗, 謂父之嫡子上繼於禰, 諸兄弟宗之, 謂之小宗.)”

4) 홍성구, 〈종족〉; 오금성,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263쪽.

가장 중요한 행위 의식이 제사라면 가장 중요한 문헌자료로는 족보를 꼽을 수 있다. 근대 사학자 呂思勉은 《中國制度史》〈宗族〉편에서 “보첩은 계통을 밝히는 것으로, 계통이 분명해지면 씨족이 뒤섞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회에서 먼저 씨족을 중시하는 마음이 발생하면 이후 보첩을 만드는 법칙이 유지될 수 있다”⁵⁾라고 하였다. 이 말은 한 사회에서 종족의식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족보를 제작하는 기풍이 생기고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그는 이어서 “송학이 성행한 이후로 사람들에게 종족을 중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족보 편찬이 다시 성행하게 되었다”라고 하였고, “오늘날 사람들이 족보를 제작하는 법식은 대부분 구양수와 소식의 체례를 근본으로 한 것이다”⁶⁾라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종족제도의 강화로 나타난 문화현상 가운데 하나인 족보가 송대에 다시 성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후인들이 족보 제작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구양수와 소식의 족보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논의에서 출발하여 아래에서는 먼저 송대 족보문화의 특징을 개괄해보고, 소순의 <蘇氏族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소씨족보>는 구양수의 <歐陽氏譜圖>와 함께 북송 2대 족보로 알려져 있지만 구양수의 것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다.⁷⁾ 아마도 소순이 구양수보다 연배도 낮고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족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겨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歐蘇體例’라고 병칭되는 만큼 소순의 족보도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소씨족보>의 특징과 성과에 대해 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5) 呂思勉, 《中國制度史》, 上海教育出版社, 1985. 388쪽: “譜牒所以明統系, 統系明則氏族不淆. 然必社會先有重視氏族之心, 而後譜牒之法, 得以維持.”

6) 上揭書 388쪽: “自宋學盛行, 人有敦宗收族之心, 而譜牒之纂修復盛.”, “今人譜法, 率本歐、蘇.”

7) 현재까지 ‘CNKI(中國知網)’에서 구양수의 <구양씨보도>에 관한 소논문으로 余敏輝의 <<歐陽氏譜圖>初探>(淮北煤炭師範學院學報, 2003. 5期), 王鶴鳴의 <國寶<歐陽氏譜圖序>簡介>(圖書館雜誌, 2003. 4期), 鮑永軍, 倉修良의 <論歐陽修的譜牒學貢獻>(社會科學戰線, 2007. 6期), 李紅의 <歐陽脩與譜牒學>(檔案, 2009. 1期) 등 4편을 확인할 수 있지만 소순의 <소씨족보>에 관한 것은 전무하다.

II. 족보의 변천과 송대 족보문화

1. 송 이전 족보의 변천과정

청대 사학가 章學誠은 “천하의 역사가 있고, 한 나라의 역사가 있으며, 한 집안의 역사가 있고, 한 개인의 역사가 있는 법이다. 전기와 행장은 한 개인의 역사이다. 가승과 보첩은 한 집의 역사이다. 군현의 지방지는 한 나라의 역사이다. 제왕의 통기는 천하의 역사이다”⁸⁾라며 역사기록에 있어 족보도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족보⁹⁾는 대략 주나라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는데¹⁰⁾, 《大戴禮記》에 나오는 〈帝系篇〉과 劉向이 《別錄》에서 언급한 《世本》 등이 氏姓의 출처를 밝힌 시초라고 한다. 한나라 들어 정치가 안정되고 제도가 정비되자 황제 및 제후들의 世譜 편찬이 활발해진다. 《한서》〈예문지〉에서 《帝王諸侯世譜》二十卷, 《古來帝王年譜》五卷 등의 기록을 볼 수 있다. 한편 《鄧氏官譜》와 동한의 應劭가 지은 《風俗通義》의 〈姓氏篇〉 그리고 王符가 찬한 《潛夫論》九卷의 〈志氏姓〉 등은 개별 문인이 편찬한 초기 족보로 거론된다.¹¹⁾

위진남북조 들어 九品中正制라는 문벌제도가 만들어 지면서 족보는 귀족들 간의 혼인이나 관직 등용에 주요 근거가 되었다. 때문에 나라에서는 圖譜局을 두어 족보를 관장하게 하였고, 학자들은 여러 종족의 족보를 연구하였으며, 귀족들은 앞 다투어 자기 종족의 족보를 만들면서 소위 ‘譜學’이 성행하게 되었다. 당시 족보를 편

8) 章學誠, 《文史通義》卷六〈外篇一〉〈州縣請立志科議〉: “且有天下之史, 有一國之史, 有一家之史, 有一人之史. 傳狀誌述, 一人之史也; 家乘譜牒, 一家之史也; 部府縣志, 一國之史也; 綜紀一朝, 天下之史也.”

9) 族譜라는 말 이외에도 고대 문헌에서 시기와 용도에 따라 家譜, 家乘, 祖譜, 宗譜, 世譜, 譜牒, 會通譜, 統宗譜, 支譜, 房譜, 譜系, 姓譜 등의 다양한 명칭이 등장한다.

10) 족보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중국 학자들은 《梁書》〈劉香傳〉에서 남조 문인 王僧孺가 유향과 보첩의 기원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근거로 周代부터 족보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설은 이후 당대 사학가 劉知幾가 《史通》에서 “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것은 주대에 처음 시작되었다(譜之建名, 始自周代)”라고 말하면서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11) 《新唐書》卷一百九十九〈列傳〉第一百二十四〈儒學中〉〈柳沖傳〉: “初漢有《鄧氏官譜》. 應劭有《氏族》一篇. 王符《潛夫論》, 亦有《姓氏》一篇.”

찬했던 문인 중에 유명했던 자로는 서진의 摯虞, 동진의 賈弼之 그리고 梁의 王僧儒 등이 있다.¹²⁾ 남송 사학가 鄭樵는 《通志》〈氏族略〉에서 위진남북조 족보편찬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술하였다.

수당 이전시기에 관가에는 부장이 있고 사가에는 보계가 있었다. 관가에서 관원을 선출할 때는 반드시 부장을 근거로 삼았고, 집안에서 혼인을 시킬 때는 반드시 보첩을 근거로 하였다. 모든 조대에서 도보국을 설치하고 낭과 영사를 임용하여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급에 통달한 유가를 기용하여 족보를 편찬하는 일을 맡겼다. …… 그러므로 사람들은 보계에 관련된 학문을 숭상하였고, 집안에는 보계에 관련된 서적을 소장하였다.

自隋唐而上, 官有簿狀, 家有譜系. 官之選舉, 必由於簿狀, 家之婚姻, 必由於譜系. 歷代並有圖譜局, 置郎令史以掌之, 仍用博通古今之儒, 知撰譜事. …… 所以人尚譜系之學, 家藏譜系之書.¹³⁾

中正官이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당 인물의 족보를 파악해야 했고, 피임용자 역시 자기 집안의 족보를 사전에 잘 정비하고 있어야 했다. 또한 좋은 집안과 혼사를 맺어 정치적 권력을 확장하고 안정시켜야 했기 때문에도 족보는 매우 중요했다. 심지어는 문벌세력들이 누리는 경제적 이득 즉 장원과 노비 같은 재산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도 족보 편찬은 더욱 성행하였다. 이렇다 보니 남조 때 보학가 賈淵은 王泰寶란 자에게 매수당해 왕씨 족보를 고쳤다가 들통이 나서 체포되고 겨우 사면을 받는 일과 같은 부작용도 종종 발생하였다.¹⁴⁾

이처럼 족보를 중시하는 풍조는 그대로 이어져 “성씨에 관한 학문은 당대에 가장 성행”¹⁵⁾하게 된다. 하지만 당대에 족보를 제작하는 목적은 전대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갖는다. 당대에는 통치자의 요구에 의해 조정에서 3차례 대규모 족보 편찬 사업이 실시되는데 “대략 태종 때 시작되어, 고종 때 개수하였고, 중종 때 편수하여 개원 연간에 완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록 또는 지라고 불렀다.”¹⁶⁾ 즉 태종 때

12) 《晉書》卷五十一〈摯虞傳〉, 《南齊書》卷五十二〈賈淵傳〉, 《南史》卷五十九〈王僧儒傳〉, 《新唐書》〈柳沖傳〉 등에서 이들의 생평을 기록하고 있다.

13) 鄭樵, 《通志》卷二五〈氏族略〉〈氏族序〉

14) 《南齊書》卷五二〈賈淵傳〉에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15) 鄭樵, 《通志》卷二五〈氏族略〉〈氏族序〉: “姓氏之學, 最盛於唐.”

편찬한 《氏族志》, 고종 때 만든 《姓氏錄》, 중종 때 시작해 현종 개원 초기에 완성한 《大唐氏族系錄》을 말하는 것이다. 당초 조정에서 족보를 전면적으로 재편찬한 주된 목적은 황실과 공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족집단을 양성하고 이들을 산둥과 동남지역의 구사족 집단과 대체시켜 정권의 사회적 기반을 다지고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신당서》〈柳沖傳〉에 “당초 태종은 여러 유학자들에게 《씨족지》를 편찬할 것을 명하여 많은 성씨를 견별하도록 하였다”¹⁷⁾라는 기록이 보인다. 중종 때는 무척천이 정권을 장악한 후 關隴귀족을 견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庶族집단을 선발하려 하자 許敬宗과 李義府가 이에 호응하여 “당대에 출사하여 관직이 오품 이상이 된 자들은 모두 사류로 승급시키고”¹⁸⁾, 《씨족지》를 《성씨록》으로 바꾸었다. 이후 중종 때에 이르러 “門閥과 世系の 성쇠가 일정하지 않음을 이유로 유충이 족보를 개정하도록 청하자”¹⁹⁾ 재차 《씨족지》를 근거로 《대당성족계록》을 편찬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족보 편찬 사업은 모두 국가에서 관장한 것으로 주로 정치 개혁이란 대의명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신당서》卷五十八〈예문지〉에는 《司馬氏世家》二卷, 《楊氏譜》一卷, 《蘇氏譜》一卷 등 17家の 39部 1617卷의 〈譜牒類〉 서목이 있어 官纂족보 이외에도 私家에서도 활발하게 족보를 편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도 오대십국이란 혼란기가 되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구양수는 “당말 이래로 혼란해지자 사족들의 가보가 망실되었고 지금 비록 명문가가 존재하지만 그 세대의 계보를 대부분 잃어버렸으므로 보학은 이로서 없어지게 되었다”²⁰⁾라고 하였고, 소순은 “당이 쇠락하고부터 보첩이 훼손되자 사대부들이 거론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천박한 신분에서 귀한 위치에 오른

16) 績溪《王氏世守譜》乾隆三十七年：“唐之牒記，蓋始於太宗，改於高，修於中，而定於開元，曰錄、曰志。”；王鶴鳴，《中國家譜通論》，87쪽 재인용

17) 《新唐書》卷一百九十九〈列傳〉第一百二十四〈儒學中〉〈柳沖傳〉：“初太宗命諸儒撰《氏族志》，甄差群姓。”

18) 《新唐書》卷二百二十三〈列傳〉第一百四十八〈姦臣〉〈李義府傳〉：“以仕唐官至五品者皆昇士流。”

19) 《新唐書》卷一百九十九〈列傳〉第一百二十四〈儒學中〉〈柳沖傳〉：“其後門胄興替不常，沖請改修其書。”

20) 《歐陽脩全集》卷七十四〈譜〉〈歐陽氏圖譜序〉：“自唐末喪亂，士族亡其家譜，今雖顯族名家，多失其世次，譜學由是廢絕。”

자들은 자신의 조상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가난한 처지에서 부자가 된 자들도 자신의 조상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족보는 마침내 대부분 사라졌다”²¹⁾라고 지적하였다. 정초의 《통지》에서도 “오대이후로는 관리를 기용하면서 가세를 묻지 않았고, 혼인을 하는데도 문벌을 따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서적들이 산실되고 보석이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²²⁾라고 기술하였다.

2. 송대 족보의 새로운 양상

송대에 이르러 사회가 다시 안정되면서 족보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된다. 즉 위진남북조에서 수당시기까지 관찬족보와 사가족보가 병존하던 국면에서 관찬족보는 사라지고 사가족보만이 흥성하게 된 것이다. 송대의 족보편찬은 편수의 목적, 편수의 형식, 가계도 작성 방법, 족보의 내용, 續修의 시간 등 여러 방면에서 이전 시기와는 다른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대 족보편찬에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중국 족보학 발전에 새로운 단계를 창조해 냈다.²³⁾ 남송 張卽之는 <藍溪李氏宗譜>에서 “우리 대송 황제에 이르러 사방천지가 청명하고 안정되자 성씨가 많아지고 번성하였다. 그러자 보첩을 만드는 일도 갈수록 크게 흥하였다”²⁴⁾라고 설명하였다. 명 汪道昆도 <潛江袁氏家譜序>에서 “당송 이후로 관찬족보는 폐지되고, 사가족보만 흥성하게 되었다”²⁵⁾라며, 송대에 사가족보가 성행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이전 시기 나라에서 圖譜局을 두어 족보 제작을 관리하던 것과 달리 송대에는 각 종족마다 개별적으로 족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조정에서 주관하지도 않는데 각 집안에서 스스로 족보를 제작하였다는 것은 족보의 기능이 바뀌었음을 뜻한다. 바로 “관리를 선별하고, 혼인을 결정하며, 귀천을 밝히는’ 기능에서 ‘조상

21) 《嘉祐集箋註》卷十四〈譜例〉: “蓋自唐衰, 譜牒廢絕, 士大夫不講, 而世人不載. 於是乎由賤而貴者, 耻言其先; 由貧而富者, 不錄其祖, 而譜遂大廢.”

22) 鄭樵, 《通志》卷二五〈氏族略〉〈氏族序〉: “自五季以來, 取士不問家世, 婚姻不問閥閱, 故其書散佚而其學不傳.”

23) 王鶴明, 〈宋代譜學創新〉, 安徽史學, 2008. 2期. 17쪽

24) 張卽之, 〈藍溪李氏宗譜〉: “洎我大宋御宇, 六合清寧, 姓氏之繁, 於斯爲盛, 譜牒之事, 益大興焉.”; 王鶴明, 〈宋代譜學創新〉. 18쪽 재인용

25) 汪道昆, 〈潛江袁氏家譜序〉: “唐宋而下, 公譜廢, 而私譜興.”; 王鶴明, 〈宋代譜學創新〉. 18쪽 재인용

을 존중하고, 종족을 공경하며, 가족을 거두는' 본족에 대한 윤리교화 작용으로 변환된 것이다."²⁶⁾

송대 들어 족보의 기능이 변환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관리임용제도의 변화이다. 송대는 수당대부터 시행된 과거제도가 정립된 시기로 일부 조상의 공훈으로 벼슬을 주는 蔭補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과거에 의한 관리 선발이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그래서 송대에는 "비록 산야의 빈천한 집안이라도 자체가 학문만 갖추었으면 반드시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다."²⁷⁾ 또한 "재주와 학문만 있으면 벼슬에 올랐고, 문벌 후손임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학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되었다."²⁸⁾ 두 번째는 종족자치가 강화되면서 종족 내부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내부결속과 윤리교화를 하기 위한 필요성에 족보라는 매체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송대로 접어들면서 신흥 관료지주계급이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가족집단 형태를 띠다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세력을 형성하는 強宗豪族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지주계급들은 종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종족관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敬宗收族'의 방법을 제창하는데 그 일환이 바로 족보편찬이다.²⁹⁾ 예를 들어 북송 이학가 장재는 "천하의 인심을 관할하고, 종족을 수렴하며, 풍속을 두터이 하고, 사람들에게 근본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계를 작성해 세대를 분명히 하고 종자법을 마련해야 한다"³⁰⁾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당시 문인사대부들이 족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다. 북송 초 처음으로 사가족보를 제작한 구양수와 소순 두 사람의

26) 朱開忠, 〈家譜之歷史及其價值〉, 淮北煤炭師範學院學報, 24卷 2期. 2003. 81쪽: "別選舉, 定婚姻、明貴賤轉變爲'尊祖、敬宗、收族'的本族倫理教化作用."

27) 陳耆卿, 《赤城志》卷三十七 〈風土門二〉 〈僊居令陳密學襄勸學文〉: "雖山野貧賤之家, 子弟苟有文學, 必賜科名."

28) 張卽之, 〈藍溪李氏宗譜〉: "才學取士, 不矜門胄, 譜學於是遂微.": 王鶴明, 〈宋代譜學創新〉, 18쪽 재인용

29) 徐揚杰, 윤재석 역, 《중국가족제도사》, 509쪽: "경종수족은 《예기》에 나오는 가족 유지 방식으로서, 이는 모든 인간의 천성이 '親親'하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 송대 이래 지주계급이 제창한 이 구호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한 친족결집의 당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친족을 단위로 한 기층 사회조직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 북송대에 이르러 '세족의 족보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하는 점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30) 張載, 《張載集》〈經學理窟·宗法〉: "管攝天下人心, 收宗族, 厚風俗, 使人不忘本, 須是明譜系世族與立宗子法."

관점을 통해서도 당시 족보편찬 의도와 기능을 알 수 있다. 먼저 구양수는 “내가 족보를 제작하는 이유는 오로지 근본을 따지고 支孫을 연합하여 윗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육친을 친애하는 도리가 존재하게 하기 위함이다”³¹⁾라고 하였다. 이는 주대 종법제에서부터 비롯된 ‘尊尊’과 ‘親親’이라는 관념이 孝悌와 友愛라는 사상을 파생하여 결국 종족내부를 결속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소순 역시 “나의 족보를 보는 이들은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끼리 우애하는 마음이 구름 피어나 듯 생겨나게 될 것이다”³²⁾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때마침 구양수와 소순이라는 대문호가 각각 본가의 족보를 직접 만들자 이에 자극을 받은 여러 문인들이 앞다투어 족보를 편찬하게 된다. 즉 曾肇의 《曾氏譜圖》, 朱長文의 《朱氏世譜》, 游九言의 《游氏世譜》, 毛漸之의 《毛氏世譜》, 朱熹의 《茶院朱氏世譜》처럼 본가 족보를 직접 편찬하거나, 王安石의 《許氏世譜》, 范仲淹의 《續家譜》, 王回有의 《清河崔氏譜》, 司馬光의 《臣寮家譜》, 游塵의 《家譜後序》, 文天祥의 《譚氏族譜序》처럼 남의 족보를 대신 제작해 주거나 또는 서문을 써주기도 하였고, 朱熹와 鄭樵 등 학자들은 족보이론이나 족보사를 연구하였으니 그야말로 사가족보의 부흥기가 시작되었다.

Ⅲ. 蘇洵 <蘇氏族譜>의 특징과 성과

1. 송대 私家족보 흥성을 개창

至和 2년(1055), 만학으로 출사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47세의 소순은 益州知州인 張方平의 천거로 成都의 學官이 된다. 그리고 이 인연은 이듬해 嘉祐 원년 두 아들과 함께 汴京으로 올라가 구양수를 만나 자신의 문장을 보이고 京師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어쨌든 당시 소순은 친족끼리 “기쁜 일에 경축하지 않고, 불우한 일을 슬퍼하지 않는 것은 바로 길에서 만나는 남이나 마찬가지로이다”³³⁾라고 개탄하였고 이에 <소씨족보>를 짓는다. 이 족보는 훗날 구양수의 <구양

31) 《歐陽脩全集》卷一百五十五〈補佚〉卷二〈衡陽漁溪王氏譜序〉: “予惟族譜之作, 所以推其本, 聯其支, 而尊尊親親之道存焉.”

32) 《嘉祐集箋註》卷十四〈蘇氏族譜〉: “觀吾之譜者, 孝弟之心可以油然而生矣.”

씨보도)와 함께 송대 사가족보의 흥성을 개창한 것으로 평가되고, ‘歐蘇體例’, ‘歐蘇法式’ 등으로 명칭되며 후대 족보편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원대 철학자 吳澄은 “세상의 족보가 변환된 것이 몇 번인지 알 수가 없으나, 오늘날에 이르러 사람들이 <구양씨보도>와 <소씨족보>를 예찬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구양수와 소순의 입문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³⁴⁾라고 하였고, 또 동시대 翰林國史院 編修官을 역임했던 胡助는 “옛날에 구양공과 소노천이 모두 족보를 만들었는데 후대인들이 그것을 배워 본보기로 삼았다”³⁵⁾라고 평했다. 명대 학자 楊士奇는 “족보를 만드는 도리는 그 근본을 밝히고 그 친족을 상세히 하여, 그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구양수와 소순이 만든 족보가 가히 법식이 될 만 한 것은 대략 이와 같은 이유이다”³⁶⁾라고 말했다. 모두 구양수와 소순의 족보가 후대 족보 편찬에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두 족보가 함께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의심 없이 소순이 구양수의 영향을 받아 족보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령 현존 족보학의 대표 학자인 王鶴鳴은 “소순이 구양수의 편찬 방법을 흡수하고, 그 족보에서 ‘아울러 구양씨의 족보를 실어 보례로 삼고 구양공께서 쓰신 <유씨비후>라는 문장을 덧붙여 세상의 군자들에게 알려서 장차 이를 따르는 자가 생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³⁷⁾고 서술하였다. 물론 소순이 구양수 보다 연배가 낮고 정치, 사상, 문학 등

33) 《嘉祐集箋註》卷十四〈蘇氏族譜〉：“喜不慶，憂不吊，則塗人也。”

34) 吳澄，《吳文正公集》卷三二〈廬陵婁氏家譜序〉：“世之譜其換着不知凡幾，至今人稱歐譜、蘇譜者何歟？以永叔、明允之言立故也。”

35) 胡助，《純白齋類稿》卷二十〈吳氏譜牒序〉：“昔歐陽公、蘇老泉皆嘗作族譜，後學之所師法”

36) 楊士奇，《東里續集》卷十三〈瑞安楊氏譜序〉：“作譜之道，明其本，詳其親，存其信，闕其疑，歐蘇所爲可法者，蓋如此。”

37) 王鶴明，《中國家譜通論》，上海古籍出版社，2010. 114쪽: “蘇洵吸收了歐陽脩編撰方法，在族譜中‘并載歐陽氏之譜以爲譜例，附以歐陽公題(劉氏碑後)之文以告當世之君子，蓋蔣有從焉者.’” 李洪才도 〈家譜體例的認識與應用〉(《中國家譜論叢》，上海古籍出版社，2010. 220쪽)에서 “소순이 소씨족보 편찬을 착수할 당시 이미 <구양씨보도>가 출판된 지 5년이 되었다. 그래서 소순이 <구양씨보도>를 배독한 후 구양씨보도의 면적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체례와 격식을 독립적으로 창제하였다. 지화2년 그의 <소씨족보>가 완성되었고 이는 후대인들이 ‘소체’라고 부르는 범본이 되었다. (當蘇洵開始着手編修蘇譜時，《歐陽氏譜圖》一書已出版了五年. 於是，蘇洵拜讀並參閱了《歐陽氏譜圖》後，認爲‘歐陽氏譜圖’占面太大，於是他自己又獨立創制了不同的體

제 방면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족보편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 단정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렇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구양씨보도>는 皇祐 5년(1053)부터 짓기 시작하여 嘉祐 4년(1059)에 완성되었고, 熙寧 2년(1069) 구양수가 靑州에 있을 때 重刊하여 부모의 묘지 앞 비석에 새겨 넣었다고 한다.³⁸⁾ 그런데 <소씨족보> 및 <族譜後錄上篇>, <族譜後錄下篇>, <蘇氏族譜亭記> 4편의 완성 시기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화 2년(1055)으로 가우 4년 보다 4년이나 앞선다. 이렇게 창작 연대만 살펴봐도 소순이 구양수의 영향을 받아 족보를 편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설사 <구양씨보도>가 착수되었다는 황우 5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소순이 구양수를 알게 된 시기가 지화 3년이므로 교류가 없던 상황에 소순이 <구양씨보도>를 접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소순이 가우 5년(1060)에 작성한 <譜例>에서 “어느 날 구양공께서 이 족보를 보시더니 ‘나도 일찍이 그러한 작업을 하였다’라고 감탄하시면서 당신이 만든 족보를 내놓으시길래 살펴보니 나와는 방식이 달랐다”³⁹⁾고 한 것처럼, 두 사람은 면식을 트고 나서야 각자 작성한 족보의 존재에 대해 알았다. 소순이 <보례>에서 “구양씨의 족보를 실어 보례로 삼는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방식과 다른 내용을 추가로 보충하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보례>와 같은 해에 작성한 <大宗譜法>은 <구양씨보도>를 본 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지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소순은 당시 시대적 요구에 따라 ‘敬宗收族’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구양수와 비슷한 시기에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족보를 완성하여 송대 사가족보의 흥성을 이끌어 낸 선구자라 말할 수 있다.

2. 새로운 체례와 譜圖법 확립

청대 문인 李元度는 “구품중정법이 폐쇄된 후로 관가의 보록이 남아 있지 않게

例、格式，在至和二年編撰完成了他的《蘇氏族譜》，成爲後人稱之爲‘蘇體’的範本。”라고 주장하고 있다.

38) 余敏輝의 <<歐陽氏譜圖>初探>에서 <歐陽氏譜圖序>와 <集古錄跋尾>의 내용을 근거로 착수 연대와 重刊 연대를 밝히고 있다. 완성 연도 역시 <구양씨보도서>에 “嘉祐四年己亥四月庚午”라고 명시되어 있다.

39) <嘉祐集箋註> 卷十四 <譜例>: “它日歐陽公見而嘆曰: ‘吾嘗爲之矣.’ 出而觀之, 有異法焉.”

되자, 사가에서 족보를 직접 만들기 시작해 종족을 공경하고 가족을 거두는 데 사용했는데, 여릉의 구양씨와 미산의 소씨가 만든 족보가 두드러졌다. 두 공은 모두 경학의 깊이가 심오하고 편성에 법식이 있었으므로 후대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⁴⁰⁾라며 두 사람이 사가족보의 흥성에 커다란 공이 있으며 특히 일정한 편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찬양하였다. 그렇다면 소순이 편찬한 〈소씨족보〉는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가? 현재 소순의 《嘉祐集》卷十四 〈譜〉편에 실린 문장 6편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譜例-蘇氏族譜(譜圖)-族譜後錄上篇-族譜後錄下篇-大宗譜法-蘇氏族譜亭記

먼저 〈보례〉에서는 먼저 고래로부터 사대부들에게 “조상을 존중하고 종족을 귀중히 여기는(尊祖而貴宗)” 관념이 있었고 이를 후인들이 계승한 덕분에 종족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얘기로 시작하여 족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자신이 족보를 편찬하는 방법과 구양수와의 만남으로 〈대종보법〉을 짓게 된 경위 그리고 〈구양씨보도〉를 보례로 삼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일종의 서문이자 범례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소씨족보〉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족보 본편에 해당한다. 우선 도입부분에서는 족보를 짓는 목적에 대해 쓰고 아울러 “친족관계가 끊어지면(親盡)” “족보에 기록하지 않는(譜不及)” 등의 편찬 원칙을 서술하였다. 또 글의 후반부에는 시 한편을 붙여 종족과 혈연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애뜻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종족의 구성원을 도표로 배열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가계도(譜圖)가 있다. 〈족보후록상편〉은 高陽氏부터 비롯된 소씨 조상의 내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기》〈大傳〉을 근거로 한 小宗의 법칙을 논하고 있다. 〈족보후록하편〉에서는 재차 소씨 조상의 계보를 따지고, 직계인 조부와 선친의 행적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여 일종의 인물전기적 성격을 띤다. 〈대종보법〉은 대종과 소종의 법도를 재차 언급하며 자신의 족보는 소종법을 따르는 것으로 각 족보에서 “3세부터만 추산해도 언급되지 않는 후손이 없게 된다(自三世而推之, 無不及

40) 李元度, 《天岳山館文抄》卷二十九 〈善化文津譚氏家譜序〉: “自九品中正之法廢, 官中無譜錄, 始家自爲譜, 以敬宗而收族, 而廬陵歐陽氏、眉山蘇氏爲著者, 二公皆濬於經術, 纂次有法, 故能傳也。”

한편 〈소씨족보〉에는 譜圖를 그려 구체적인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계도를 작성하는 방법에서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였다. 바로 ‘다섯 세대를 기준으로 보도를 그리는(五世爲圖)’ 작성법인데 이는 소종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즉 고조, 증조, 조부, 부, 자신, 그리고 자식 항렬까지 도식하였고, 자식대가 다시 종조가 되어 새롭게 도보를 작성하게끔 한 것이다. 소순은 〈족보후록상편〉에서 “적장자가 아닌 별자가 宗祖가 되고, 그를 계승하여 종으로 삼으며, 그 후사를 잇는 것이 소종이라고 한다. 백 대가 되어도 옮겨지지 않는 종이 있고, 오대만 옮겨지는 종이 있다”⁴²⁾는 《예기》 〈대전〉의 문장을 인용하고, 이어서 “세상 사람들 중 오직 천자의 아들과 처음 대부가 된 자들은 그 후대도 대종이 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오직 소종의 법만이 세상에 시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족보를 만들 때 그 법식은 모두 소종을 따르는 것이다”⁴³⁾라고 하였다. 즉 다섯 세대마다 새롭게 종조를 세우는 소종법에 따라 족보 보도를 도식한 것이다. 한편 이외에도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다. 소순이 〈보례〉에서 “내가 일찍이 선친의 말씀을 조사하고 연구해보니 지금으로부터 위로 오대까지 알 수 있었고, 오대로부터 위로는 한 세대까지 알 수 있었다. 그 한 세대 위로는 그 세차(연대의 선후)를 잃어버렸지만 그 뿌리는 조군 소씨로부터 나온 것으로 하여 《소씨족보》를 작성하였다”⁴⁴⁾고 말한 것으로 보아 상고 가능한 세대까지가 5대였으므로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구양수의 〈구양씨보도〉 역시 五世를 기준으로 보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⁴⁵⁾ 소순의 것과 다소간 차이가 있다. 명대 사학자 王禕는 〈金華俞氏家乘序〉란 글에서 두 족보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송대에 족보로 언급될 수 있는 자는 두 사람이 있다. 여릉 구양씨와 미산

42) 《嘉祐集箋註》卷十四〈族譜後錄上篇〉: “別子爲祖, 繼別爲宗, 繼禰者爲小宗. 有百世不遷之宗, 有五世則遷之宗.”

43) 《嘉祐集箋註》卷十四〈族譜後錄上篇〉: “凡今天下之人, 惟天子之子與始爲大夫者, 而後可以爲大宗, 其餘則否. 獨小宗之法, 猶可施於天下. 故爲族譜, 其法皆從小宗.”

44) 《嘉祐集箋註》卷十四〈譜例〉: “洵嘗自先子之言而咨考焉, 由今而上得五世, 由五世而上得一世, 一世之上失其世次, 而其本出於趙郡蘇氏, 以爲《蘇氏族譜》.”

45) 많은 학자들이 구양수가 ‘五世爲圖’ 혹은 ‘五世則遷’의 작성법을 창시했다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가령 鮑永軍, 俞修良은 〈論歐陽修的譜牒學貢獻〉에서 청대 학자 萬斯大의 논거를 빌어 구양수의 보법은 “아홉 세대의 직계를 구비한(九族之親備)”⁴⁵⁾ 것이지 오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후인들의 오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 소씨인데 두 사람의 편찬방법이 각각 다르다. 구양씨는 세대를 종축으로 삼고 인물을 횡축으로 삼았는데 이는 사마천의 연표를 법식으로 삼은 것이다. 소씨는 계파를 연결하여 만들었는데, 마치 예가에서 만든 종족도와 유사하다.”⁴⁶⁾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도 두 사람의 족보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 졌지만 각기 다른 형식과 기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순의 <소씨족보>는 중국 최초의 족보는 아니지만 당말 오대의 혼란한 시기에 족보가 거의 소실된 상황 하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체례와 작성법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⁴⁷⁾

3. 曲折한 문체로 人心을 감응

저명한 산문가인 茅坤은 《唐宋八大家古文鈔》에서 <소씨족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론하였다. “의론은 간략하면서도 엄준하고, 정감은 변화무쌍하다. 또한 그 기품과 격식은 대략 <공양>과 <곡량> 두 전에서 나온 것 같다.”⁴⁸⁾ 일반적으로 족보라는 기록문의 성격상 의론이 간략하고 엄준하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譜類의 글에서 곡절있는 문체를 사용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이렇게 감성적인 문체로 서술한 이유는 아마도 족보를 편찬하는 목적에 있던 것 같

46) 王禕, 《王忠文公集》卷四〈陳氏族譜圖序〉: “宋世言族譜者二家, 曰廬陵歐陽氏、眉山蘇氏, 而二家之法, 厥各不同. 歐陽氏則世經人緯, 取法於史氏之年表, 蘇氏則派聯系屬, 如禮家所爲宗圖者.”

47) 이외에도 족보를 續修 즉 수정 편찬하는 데 걸리는 기간에 대하여 대부분 집안에서 30년 또는 3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소순이 제창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新安琅琊王氏宗譜》卷之首〈先儒論譜〉에는 소순이 “삼대가 되어 족보를 고치지 않으면 소인배의 집안이나 마찬가지로이다(三世不修譜, 則同小人矣.)”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말은 이후 족보를 수정 편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표가 되었고, 많은 문인 학자들이 동조하였다. 가령 남송의 주희도 “집안에 삼대가 되도록 족보를 수정 편수하지 않으면 불효나 마찬가지로이다(人家三代不修譜, 則爲不孝.)”(謝炳華等修, 〈歙西范川謝氏支譜〉)라고 하였는데 이로써 많은 이학가들이 족보 속수를 효도라는 개념과 연계하게 되었다. 하지만 소순이 했다는 말의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본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자 한다.

48) 茅坤, 《唐宋八大家古文鈔》: “議論簡嚴, 情事曲折, 其氣格大略從《公》、《穀》中來.”: 《嘉祐集箋註》卷十四〈蘇氏族譜〉【集說】 재인용

다. 소순은 소씨 집안이 高陽氏로부터 비롯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종족이지만 친족 관계가 끊어지면서 족보기록이 남지 않게 됨을 애석해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족보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였다.

내가 서로 남처럼 보는 사람도 그 처음은 형제였다. 형제도 그 처음은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이다. 슬프구나! 한 사람의 몸이었던 것이 나뉘어 길 위의 남이 됨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내 《족보》가 만들어진 까닭이다. 그(족보를 만든) 뜻은 다음과 같다. 한 사람이 나뉘어 길거리의 남에 이르는 것이 (인간사) 형세로다. 이 형세는 나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다행히 아직 길거리의 남에 이르지 않은 이들은, 소홀히 하여 잊어버림에 이르지 않게 하면 좋겠다. 아아! 나의 《족보》를 보는 이들은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끼리 우애하는 마음이 구름 피어나 듯 생겨나게 되리라.

吾之所以相視如塗人者, 其初兄弟也. 兄弟, 其初一人之身也. 悲夫! 一人之身分而至於塗人, 此吾《譜》之所以作也. 其意曰: 分而至於塗人者, 勢也. 勢, 吾無如之何也已. 幸其未至於塗人也, 使之無至於忽忘焉可也. 嗚呼! 觀吾之《譜》者, 孝弟之心可以油然而生矣.⁴⁹⁾

동일한 조상의 몸에서 시작되었지만 형제가 많아지고 세대가 오래되면서 마치 길가에 스치며 지나치는 사람(塗人)처럼 되어버리는 현실을 탄식하는 모습에서 소순이 얼마나 가족과 종족을 중시하며 애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이 만든 족보를 보면 효성과 우애가 구름 피어나 듯 생기게 될 것이라는 비유에서는 그저 편찬 목적을 드러내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그러한 당위성을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문미에 부기한 시구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孝弟之心’을 중시하고 이를 감성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는지 더욱 잘 나타난다.

시를 붙여서 이렇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나의 형이로다. 내가 몸에 병이 생기면 형도 신음하며 편치 않겠지. 그러나 몇 세대 뒤엔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게 될 것이니. 그들이 죽고 태어나도, 슬프거나 기쁘지도 않겠지. 형제의 정은, 마치 수족과 같은 관계지만,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저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란 말인가!

系之以詩曰: 吾父之子, 今爲吾兄. 吾疾在身, 兄呻不寧. 數世之後, 不知何人.

49) 《嘉祐集箋註》卷十四〈蘇氏族譜〉

彼死而生，不爲戚欣。兄弟之親，如足如手，其能幾何？彼不相能，彼獨何心！⁵⁰⁾

남송 문인 羅大經은 <소씨족보>에 나오는 이 시구를 평가하면서 도연명의 <贈長沙公族祖>를 들고 “연명의 詩意를 갖추었고 시의 자수는 적지만 그 의미는 풍부하여, 가히 짓어든다고 평할 수 있다”⁵¹⁾라고 했다. 짧은 글이지만 소순이 족보를 편찬하는 당위성과 그 마음을 감성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본 것이다. 또 元人 胡助는 “옛날에 구양공과 소노천이 모두 족보를 만들었는데 후대인들이 그것을 배워 본보기로 삼았다. 소순의 말은 더욱 사람의 마음을 감응시키니 그 의미를 찾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⁵²⁾고 평했다. 역시 <소씨족보>의 優柔體가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여 족보를 찾게끔 한다는 말이다. 《三蘇文範》을 편찬한 明人 楊慎 역시 “문장이 경전에 다다른 것은 문장의 최고 경지이다. 이 문장은 《곡량전》체와 비슷하고, 시는 척령시와 유사하니, 역시 소노천의 문장은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⁵³⁾라고 극찬하였다. 척령시는 《시경》<小雅>편의 <常棣>라는 시를 말한다. 시에 “할미새가 언덕에 (안절부절) 있으니, 형제가 위급함을 서로 구하네”⁵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후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 서로 돕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양신은 소순이 형제의 정은 본디 수족과 같은 깊은 관계이지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현실을 슬퍼하는 마음을 척령시의 정서와 같다고 바라본 것이다. 이렇게 소순의 <소씨족보>는 그저 종족의 가계와 역사를 기록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감성적인 필체를 통해 이를 본 사람들이 종족을 중시하고 경애하는 마음이 싹트도록 의도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明人 鄭先民이 <汪氏族譜序>에서 “족보를 만드는 것은 본래 흩어진 인심을 묶고, 그들이 근본을 돌아보고 기원을 찾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노천 소씨 논조의 개괄이다!”⁵⁵⁾라고 평한 말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50) 《嘉祐集箋註》卷十四 <蘇氏族譜>

51) 羅大經, 《鶴林玉露》: “正淵明詩意, 詩字少意多, 尤可涵咏.”; 《嘉祐集箋註》卷十四 <蘇氏族譜> 【集說】 재인용

52) 胡助, 《純白齋類稿》卷二十 <吳氏譜牒序>: “昔歐陽公、蘇老泉皆嘗作族譜, 後學之所師法, 若蘇子之言, 尤有感於人心, 可不釋其意乎!”

53) 楊慎, 《三蘇文範》: “文至經傳, 文之至也. 此篇引似《穀梁》體, 詩似鶴鶴詩, 亦是老泉文之至.”; 《嘉祐集箋註》卷十四 <蘇氏族譜> 【集說】 재인용

54) 《詩經》<小雅><常棣>: “脊令在原, 兄弟急難.”

55) 鄭先民, <汪氏族譜序>: “族譜之設, 原以維散渙之人心, 使之顧本溯源. 老泉蘇氏論之

IV. 결론

본고는 중국족족제도 중 한 집안의 계보와 역사를 기록한 문헌자료인 족보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에서 족보는 대략 주나라부터 형성되어 오랜 기간 그 전통을 이어오며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와 기능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필자는 종족관념이 강화된 송대의 문화 특징 가운데 사기족보의 편찬이 매우 흥성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역대 족보의 변천 상황을 살펴보고 송대에 와서 사기족보가 발달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송대 최초로 제작된 소순 〈소씨족보〉의 특징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소씨족보〉는 비슷한 시기에 〈구양씨보도〉와 함께 출현하여 북송 사기족보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전 족보가 거의 소실된 어려운 상황 하에 자신만의 기준으로 새로운 체례와 작성법을 확립하였으며, 효도와 우애를 전파한다는 족보 편찬 목적을 감성적인 필체로 호소하였다. 소순의 이같은 성과로 족보는 명청대에 들어 더욱 활발하게 편찬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지속되는 전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국내 족보에서도 소순과 〈소씨족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가령 《全州李氏溫寧君派譜》〈庚子舊譜序〉에는 “송나라때 소순이 족보를 만든 이후로 집집마다 반드시 족보가 있어서 성씨의 계보가 더욱 밝아졌고 족보의 규칙이 더욱 자상하게 되었다”⁵⁶라는 구절이 나와 우리나라에서 일정 정도 〈소씨족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11년 8월 4일에는 계명대와 성균관대가 공동으로 ‘동아시아 족보(族譜)의 특성과 연구과제’란 주제로 한국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대회의 목적은 족보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은 물론, 족보를 만들어낸 다양한 사회구조와 사회활동을 고찰하고, 동아시아 각지의 족보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를 통해 한국 족보의 특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에 있다. 이처럼 족보는 그 기원은 중국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아시아 각국에서 함께 인식하고 만들어 온 공통문화이다. 따라서 족보는 고대 동아시아 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며 동아시아인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

概矣!”; 王鶴明, 〈宋代譜學創新〉, 22쪽 재인용

56) 《全州李氏溫寧君派譜》〈庚子舊譜序〉, 家乘미디어, 2004. 80쪽: “自宋蘇洵以後, 家必有譜, 氏系愈明, 譜規益詳”

말할 수 있다. 이후 중국 족보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하고 정리하면 이것이 우리 족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우리의 것이 어떻게 새롭게 발전·변화되었는지를 비교 확인할 수 있겠다.

【參考文獻】

- 阮元校刻,《十三經注疏》,中華書局,1996
 歐陽脩,宋祁《新唐書》,中華書局,2003
 鄭樵,王樹民點校,《通志二十略》,中華書局,1995
 張載,《張載集》,中華書局,2006
 歐陽脩,李逸安點校,《歐陽脩全集》,中華書局,2001
 蘇洵著,曾棗莊·金成禮箋註,《嘉祐集箋註》,上海古籍出版社,2001
 王禕,《王忠文公集》,叢書集成初編,商務印書館,1930
 章學誠,葉瑛校注,《文史通義校注》,中華書局,2004
 李元度,《天岳山館文抄》,續修四庫全書,上海古籍出版社,2001
 呂思勉,《中國制度史》,上海教育出版社,1985
 王善軍,《宋代宗族和宗族制度研究》,河北教育出版社,1999
 王鶴明,《中國家譜通論》,上海古籍出版社,2010
 上海圖書館編,《中國家譜論叢》,上海古籍出版社,2010
 徐揚杰,윤재석 역,《중국가족제도사》,아카넷,2000
 오금성,《명청시대 사회경제사》,이산,2007
 朱開忠,〈家譜之歷史及其價值〉;《淮北煤炭師範學院學報》,2003. 2期
 余敏輝,〈歐陽氏譜圖初探〉;《淮北煤炭師範學院學報》,2003. 5期
 鮑永軍,倉修良,〈論歐陽修的譜牒學貢獻〉;《社會科學戰線》,2007. 6期
 王鶴明,〈宋代譜學創新〉,《安徽史學》,2008. 2期
 陸貞任,〈宋元代 族譜修撰과 그 社會史的 意義〉,《한국사학보》,제22호,2006. 2

【中文提要】

該文主要考察宋代族譜文化及蘇洵的<蘇氏族譜>。在中國族譜的發展上,宋

代處于重要變革、轉型時期。与以前時期的譜學比較，宋代呈現了官纂公譜廢絕和私纂家譜興盛的趨勢，在編修宗旨、編修形式、譜圖之法、撰寫內容、續修時期等諸方面均發生明顯變化，從而奠定了后世修譜的基本格局。特別，北宋初蘇洵和歐陽修兩者同時編撰各家的族譜，正式開端了宋代私家族譜的繁榮時期。由于政治、思想、文學等諸方面上蘇洵對歐陽修接受了不少影響，一般都認為〈蘇氏族譜〉一定吸收〈歐陽氏譜圖〉的做法。但筆者看，只考兩篇文章的創作年代就容易得知這不是事實。蘇洵在〈譜例〉也說：“它日歐陽公見而嘆曰：‘吾嘗爲之矣。’出而觀之，有異法焉。”這句話就證明兩者認識之前已經寫成自己的族譜，所以能說蘇、歐都有開創私家族譜興盛的功勞。此外，“洵嘗自先子之言而咨考焉”的方法，具備了比較完整的體例，而且確立了“五世爲圖”的譜圖之法。最值得注目的就是〈蘇氏族譜〉使用“議論簡嚴，情事曲折”的筆法，引起讓人“尤可涵咏”及“感於人心”的效果。這種感性的文体就是在〈歐陽氏譜圖〉里看不見的，只在〈蘇氏族譜〉里存在的特征。

族譜是韓、中、日以及很多東南亞各國都所有的共同文化，但中國的歷史比較悠久而相關資料也比較多。如果仔細考察中國的族譜文化，很多方面都可以聯系到我國的情況，而更深入地研究韓國族譜文化。

【主題語】

宋代，族譜，家譜，譜學，官纂族譜，私家族譜，蘇洵，蘇氏族譜，歐陽脩，歐陽氏譜圖

투고일: 2011.10.20 / 심사일: 2011.10.24~11.6 / 게재확정일: 2011.11.10